



제주 영리병원 소송 대법원으로...

'개설 허가 취소' 놓고 1심과 2심 판결 엇갈려도, 항소심 판결 불복해 지난 6일 상고장 제출 개원 연기 사유 정당성 여부가 최종판결 쟁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논란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녹지그룹의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먼저 지난해 10월 10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

는 "원고(녹지병원)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단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원고는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개설 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고 명시한 의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반면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욱 부장판사)는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15개월이나 끌었고, 허가를 내줄 때도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녹지병원 입장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이 달리거나 개설 허가가 15개월이 지나야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했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행정절차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등 개원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할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녹지병원이 개원을 연기한 이유가 의료법에 명시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제주도는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

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제주도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반발해 녹지제주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은 이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제주지법(1심)에서 진행된다. 송은범기자

전직교사 유혹 2억 '골짜기' 9명 때 주고 일당엔 장땀 역대 사기도박 8명 재판

제주에서 역대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펼쳤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씨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서 설계자로 지목된 A씨와 기술자 B(69)씨, 자금책 C(59)씨는 구속된 상태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에 서 도박 경합이 없는 전직 교사 D(77)씨를 유인, 섣달 사기 도박으로 2억1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패를 미리 조작하는 속칭 '탄'으로 D씨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D씨에게 9명을 주면 공모자에게 이보다 높은 패인 장땀을 주는 방식이다.

이날 A씨와 B씨는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도박을 했을 뿐이다. 탄이라는 기술도 쓰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C씨와 나머지 피고인 4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다음달 12일 오후 3시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가을의 꽃 국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화훼코너에 활짝 핀 국화꽃이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민기자

해경, 해양 시설 10곳 안전대진단

내달 29일까지 합동 점검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약 54일간 관내 해양시설 10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안전대진단 기간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합동점검반은 관내 300kV 이상 대규모 기류저장시설 등 해양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위험·핵심시설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류저장시설 오염물질 처리·기록 관리 >해양오염사고 대비 훈련·대응체계 >기류저장 장치 시설물 작동상태 등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에도 나선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대규모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바다에 유출되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5년간 안전문제 107건을 진단하고 개선조치한 바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가을태풍, 제주 관찰을까

13·14호 잇따라 발생 기상청 "13호 中 상륙 14호는 진로 유동적"

제13호 태풍 '핀선'과 14호 태풍 '찬투'가 잇따라 발생, 제주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핀선은 지난 6일 오후 3시 필리핀 남동쪽에서 발생했다. 7일 오후 3시 기준 필리핀 마닐라 남동쪽 약 370km 부근 육상에서 시속 15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96hPa, 최대풍속 초속 20m, 강풍반경 170km로 아직까지 소형급이다.

향후 예상 진로는 9일 오후 필리

핀을 벗어나 11일 오후 중국 하이난 섬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돼 아직까지 제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7일 오전 9시 괌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이날 오후 3시 현재 괌 서북서쪽 약 10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 994hPa, 최대풍속 초속 21m, 강풍반경 160km로 소형급이다.

예상된 진로는 11일 오후 3시 타이완 타이베이 남쪽 약 44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한 뒤 타이완 남쪽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14호 태풍 찬투의 경우 향후 진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경찰, 서민 위협 '동네조폭' 집중단속

경찰이 '동네조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생활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생활주변 폭력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폭력행위(약성 민원 포함)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등부경찰서는 지난 3일 제주시 일도2동 소재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며 업무를 방해한 A(52)씨를 5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7회에 걸쳐 편의점과 주점 등에

서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제주서부경찰서도 무전취식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B(56)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달 21일 제주시 용담동 소재 식당에서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석방됐음에도 이를 뒤 재차 무전취식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식당 주변 80대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주변의 피해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토지대금 받고도 "못받았다" 거짓소송 70대 벌금 2000만원

토지 판매대금을 받아놓고도 받지 못했다는 거짓 소송을 제기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6월 자신이 소유하던 제주시 읍지역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A씨 주택 중 일부가 부인이 침범된 사

실을 인지했다. 이에 김씨는 A씨에게 "침범한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고 말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1일 제주지법에 "A씨가 9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A씨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조차 없다"면서도 "다만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페르카 효과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The founder of granular water soluble fertilizer

Powerful

용량 : 20kg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농가작업인부 지원 (과수원 발작업)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